

※근대의식의 성장※

[1] 위정척사운동과 개화운동의 비교

위정 척사 운동(보수적 유생층)	개화 운동(중인)
<p>(1) 영향: 주리론                      (2) 개념                      ① 위정: 성리학과 성리학적 질서의 수호 ②                      척사: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의 배격                      (3) 목적: 존왕양이, 내수외양                      ① 전제주의적 정치체제의 유지                      ② 지주중심의 봉건적 경제체제의 유지                      ③ 양반중심의 차별적 사회체제의 유지                      ④ 성리학적 유일사상체제의 유지                      (4) 전개 과정                      ① 1860년대: 개항 이전                      ㉠ 기정진, 이항로                      ㉡ 통상반대운동, 척화주전론                      → 대원군의 통상수교거부의 뒷받침                      ② 1870년대: 문호개방의 전후                      ㉠ 최익현, 유인석                      ㉡ 개항반대운동, 왜양일체론                      ③ 1880년대                      ㉠ 이만손: 영남 만민소                      ㉡ 개화반대운동, 조선책략의 비판                      ④ 1890년대: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                      (5) 의의: 반외세 자주운동(청은 제외)                      (6) 변화: 일부 혁신적 인사들은 개화운동에 참여</p>	<p>(1) 영향                      ① 실학(북학파)                      ② 양무운동(청: 中體西用)                      ③ 문명개화론(일본: 和魂洋才): 메이지유신(1868)                      (2) 형성: 개항이전                      (3) 목표: 동도서기(東道西器)                      (4) 주장                      ① 전제군주제 → 입헌군주제: 군주제의 인정                      ② 한문전용 → 국한문혼용                      ③ 우편제도의 실시, 신앙의 자유, 신분제의 부정                      ④ 철도의 부설, 공장의 설립, 증기선의 도입                      (5) 개항 이후 정부의 개화정책                      ① 주관: 통리기무아문(청의 제도 모방)                      ② 군사제도의 개편                      ㉠ 5군영을 2영(무위영, 장어영)으로 통합, 개편                      ㉡ 별기군의 창설: 신식군대                      ③ 시찰단의 파견: 신문화의 도입 추진                      ㉠ 일본 → 박문국, 우정국 등의 설치                      ㉡ 수신사                      - 1차(1876): 김기수 → “일동기유”의 저술                      - 2차(1880): 김홍집 → “조선책략”의 유포                      ㉢ 신사유람단(1881):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                      ㉣ 청: 영선사(1881): 김윤식 → 기기창의 설치                      (6) 애로점: 친청세력(민씨 일파)의 견제</p>

[2] 임오군란의 발발(1882)

- (1) 원인
  - ① 개화와 보수의 대립
  - ② 구식군대의 차별대우: 민씨 정권이 신식군대인 별기군의 우대
- (2) 경과: 민씨세력의 축출, 반일감정의 고조, 대원군의 재집권
- (3) 결과
  - ① 청·일 양국의 대립 → 청이 대원군의 압송
  - ② 제물포 조약의 체결: 일본에게 배상금의 지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 인정
  - ③ 청의 내정간섭과 경제적 침략
    - ㉠ 군사권의 장악: 위안스카이 등이 지휘하는 군대의 상주
    - ㉡ 고문통치의 실시: 마젠창과 뮐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
    - ㉢ 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 청나라 상인에게 특권의 허용 → 청·일상인의 무역 경쟁
  - ④ 민씨세력의 재집권 → 친청정책의 추진(개화정책의 후퇴)

[3] 갑신정변(1884)

- (1) 원인

온건개화파(사대당)	↔	급진개화파(개화당)
·점진적 개혁의 추구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 ·수구·보수주의 ·민씨정권과 결탁, 청에 의존 ·전제군주체제의 유지 ·임오군란 이후에 집권		·급진적 개혁의 추구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 홍영식 등 ·개화자주독립주의 ·일본에 의존 ·입헌군주체제의 지향 ·갑신정변의 주도

(2) 경과

- ① 우정국정변
- ② 14개조의 정강 마련
  - ㉠ 목적 : 근대국가의 건설 지향
  - ㉡ 주요 내용
    - ① 청에 대한 사대관계의 폐지, 인민평등권의 확립
    - ② 지조법(地租法)의 개혁, 재정기관의 호조 일원화, 해상공국의 혁파
    - ③ 내각중심의 정치 실시, 경찰제의 실시

(3) 결과 및 영향

- ① 실패 원인
  - ㉠ 개혁 주체의 세력기반이 약함(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함)
  - ㉡ 외세(일본)에 의존, 청의 무력 간섭
- ② 한성조약의 체결(1884) : 일본에 배상금 지불, 공사관의 신축비 부담
- ③ 텐진조약의 체결(1885)
  - ㉠ 내용 : 청·일 양국군의 철수
  - ㉡ 결과 : 일본은 청국과 동등하게 조선에 대한 파병권 얻음  
→ 동학농민운동 때 청군과 일본군이 파병되는 근거
- ④ 청국의 내정간섭이 더욱 강화 → 보수세력의 장기집권 가능
- ⑤ 개화세력의 위축 → 개화운동의 흐름 약화

(4) 의의

- ① 청에 대한 사대외교의 청산, 입헌군주제적 정치구조의 추진
- ② 인민평등권과 능력에 따른 인재의 등용
- ③ 근대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치개혁운동(근대화운동의 선구)

[4] 거문도사건(1885 ~ 1887)

- (1) 러시아의 한반도 침투에 대항하여 영국이 거문도의 점령
- (2) 종립론의 대두 : 부들러, 유길준

[5] 방곡령의 반포(1889)

- (1) 배경
  - ① 일본에 의한 경제적 간섭의 강화 :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계기
  - ② 일본의 무역 독점
    - ㉠ 처음에 중계무역을 하였으나, 점차 자국제품으로 대체

- ㉠ 입도선매나 고리대의 방법으로 곡물을 사들여 폭리를 취함
- (2) 경과 :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곡물의 수출을 금지
- (3) 결과 : 통상장정에 근거하여 배상금의 지불

## [6] 동학농민운동

- (1) 동학의 교세 확대
  - ① 인간평등사상과 사회개혁사상이 농민의 요구에 부합 → 농민층의 참여
  - ② 결과 : 민란 형태의 농민운동이 조직적인 농민전쟁의 형태로 바뀜
- (2) 교조신원운동
  - ① 삼례집회(제1차, 1892) : 최초의 집회
  - ② 복합상소(제2차, 1893) : 동학교도의 대표가 상경하여 상소
  - ③ 보은집회(제3차, 1893) : 탐관오리의 숙청, 일본과 서양세력의 축출 요구  
→ 종교운동이 정치운동으로 전환
- (3) 전개 과정
  - ① 제1기(고부민란의 시기, 1894)
    - ㉠ 전봉준, 김개남이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주장
    - ㉡ 황토현전투의 승리 → 전주의 점령
  - ② 제2기(폐정개혁안의 실천기)
    - ㉠ 정부와 전주화약 → 폐정개혁 12개조의 건의, 집강소의 설치
    - ㉡ 텐진조약에 근거하여 청과 일본이 군대의 파견 → 청일전쟁의 발생
  - ③ 제3기(동학농민군의 재봉기)
    - ㉠ 원인 : 정 부의 개혁 부진, 일본의 침략과 내정간섭의 강화
    - ㉡ 결과 : 공주의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
- (4) 결과 : 반봉건적, 반침략적 → 집권세력과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
  - ① 반봉건적 : 노비문서의 소각, 토지의 평균 분작 등 → 양반이 민보군의 조직
  - ② 반침략적 :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한 민족운동
- (5) 영향
  - ① 반봉건적 : 황빈당의 조직, 갑오개혁에 영향 → 전통질서의 붕괴 촉진
  - ② 반침략적 : 동학농민군이 의병운동에 가담 → 반일무장투쟁의 활성화
- (6) 의의 : 아래로부터의 반봉건적, 반침략적 민족운동
- (7) 한계성 : 근대적 사회의식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

## [7] 자주적 개혁의 추진

- (1) 배경
  - ① 농민의 개혁 요구
  - ② 온건개화파들이 개혁의 필요성 공감
- (2) 교정청의 설치(1894)

## [8] 갑오개혁(1894)

- (1) 추진 과정
  - ① 제1차 김홍집 내각의 성립 : 대원군의 섭정, 친일내각

- ② 군국기무처의 설치 : 갑오개혁의 추진, 초정부적 회의기관
- ③ 박영효, 서광범의 참여 : 일본의 간섭
- ④ 군국기무처의 폐지
- ⑤ 제2차 김홍집 내각의 성립 : 김홍집·박영효의 연립내각, 친일내각
- ⑥ 독립서고문 : 고종이 종묘에 나가 바친 일종의 독립선언문
- ⑦ 홍범 14조의 반포 :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  
(자주권, 행정, 재정, 교육, 관리임용, 민권보장 등의 내용 규정)

(2) 내용 :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 걸친 근대적 개혁

- ① 개국연호의 사용 :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부인
- ② 왕실과 정부의 사무 분리 : 내각의 권한 강화 → 왕권의 제한
- ③ 과거제도의 폐지 : 인재의 등용, 새로운 관리임용제도의 실시
- ④ 사법권의 독립 : 체포, 구금, 재판의 업무는 경찰관과 사법관이 담당
- ⑤ 지방관의 권한 축소 : 행정권에서 사법권과 군사권의 독립
- ⑥ 재정의 일원화 :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는 탁지부가 관장
- ⑦ 왕실과 정부의 재정 분리 : 국가재정의 정비
- ⑧ 전통적 폐습의 타파 : 인신매매행위의 금지, 조혼의 금지, 과부개가의 허용, 고문과 연좌법의 폐지 등
- ⑨ 신분제의 철폐 : 계급의 타파, 공사노비제도의 폐지 등
- ⑩ 은본위 화폐제도의 채택, 조세의 금납제 시행, 도량형의 개정 통일 등
- ⑪ 군사제도 : 훈련대의 창설 확충, 사관양성소 설치 등

(3) 의의와 한계성

- ① 자율적(자주적)
  - ㉠ 개혁운동의 연장선 : 개화인사와 농민층의 개혁의지가 일부 반영
  - ㉡ 근대적 개혁 : 전통질서의 타파
- ② 타율적(비자주적) : 일본의 침략 의도가 반영 → 군사제도의 개혁을 소홀히 함
- ③ 토지제도의 개혁이 없음 → 국민의지지가 없음

※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의 비교

갑신정변(14개조 정강)	동학농민운동(폐정개혁12조)	갑오개혁(홍범14조)
·신분제의 폐지 (문벌의 폐지)	신분제의 폐지 (노비문서의 소각)	신분제의 폐지 (문벌의 폐지, 과거제도의 폐지)
·지조법의 개혁	무명잡세의 일체 폐지	납세는 법으로 정함
·재정의 일원화(호조)	왜와 통하는 자의 엄징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경찰제의 실시	청상과부의 개가 허용	청에 의존하지 말 것
·해상공국의 혁파	토지의 평균 분작	왕실사무와 국정사무의 분리
·흥선대원군의 송환	공사채의 무효	지방관의 직권 제한

- ㉠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의 공통점 : 신분제의 폐지, 조세제도의 개혁
- ㉡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의 공통점 : 재정의 일원화

[9] 삼국간섭

- (1) 내용 : 러시아, 프랑스, 독일

(2) 결과

- ① 일본의 세력 약화 → 박영효가 민씨 일파에 의해 제거
- ② 친러내각의 구성

[10] 을미사변(명성왕후 시해사건, 1895)

- (1) 배경 : 온건개화파와 친러파의 연립내각인 제3차 김홍집 내각의 성립
- (2) 내용 : 친러파와 연결된 명성황후를 일본 침략자들이 시해

[11] 을미개혁(1895)

- (1) 내용
  - ① 단발령의 실시 : 유생들의 반발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 ② 군제의 개편 : 친위대(중앙군), 진위대(지방군)
  - ③ 연호의 사용 : 건양
  - ④ 기타 : 태양력의 사용, 소학교의 설립, 우편제도의 실시, 종두법의 실시 등
- (2) 반발 : 유생층과 농민들이 의병활동을 전개
- (3) 결과 : 아관파천(俄館播遷)에 의해 개혁운동의 중단

[12] 아관파천(俄館播遷 : 1896 ~ 1897)

- (1) 개념 : 친러파가 국왕을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신시킨 사건
- (2) 결과
  - ① 친러파 정권의 성립(친러내각의 성립), 고문통치의 실시
  - ② 을미개혁의 중단(친일내각의 붕괴)
  - ③ 열강의 이권침탈 격화(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 삼림채벌권)

[13] 독립협회(1896 ~ 1898)

- (1) 3대 사상

자주국권사상	자유민권사상	자강개혁사상
만민공동회의 개최 자주중립외교의 추진 열강의 내정간섭과 이권요구에 대항 자주독립국가의 건설	의회의 설립 국민참정권운동의 전개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	민중을 개화운동과 결합 입헌군주제의 실시 신교육의 실시 국방력의 강화 산업의 개발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자주적 근대화 사상

- (2) 관민공동회의 개최(1898) : 만민공동회에 정부대신의 합석, 헌의 6조의 채택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의 헌의 6조**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책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 ㉠ 예산과 결산의 공포, 인권의 존중, 의회의 개설 등을 결의한 것이 주목
- ㉡ 국권수호, 민권보장, 정치개혁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국왕의 재가를 받음

- (3) 의회식 중추원 관제의 반포 : 정부와 협상을 벌여 관선의원과 민선의원  
→ 최초로 국회가 설립될 단계에까지 이름
- (4) 해산
- ① 보수세력의 반발 :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고 모함
  - ② 대한제국의 탄압 : 황국협회를 이용하여 만민공동회의 탄압

**[14] 대한제국(1897 ~ 1910)**

- (1) 성립(1897) : 경운궁으로 환궁,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 원구단에서 황제로 즉위

연호의 사용	
고 구 려	영락(최초, 광개토태왕)
신 라	건원(법흥왕), 개국(진흥왕), 건복(진평왕)
발 해	천통(대조영=고왕), 인안(무왕), 대흥(문왕), 건흥(선왕)
통일신라	경운(김헌창)
고 려	천수(태조), 준풍, 광덕(광종), 천개(묘청)
갑오개혁	개국기원(1894)
을미개혁	건양(1895)
대한제국	광무(고종, 1897), 융희(순종, 1907)

- (2) 광무개혁의 추진
- ① 성격
    - ㉠ 점진적 개혁의 추구 : 집권층은 갑오·을미개혁의 급진성 비판
    - ㉡ 복고주의 : 시정 방향은 구본신참(舊本新參)
  - ② 내용
    - ㉠ 대한민국 국제(大韓國國制)의 제정(1899)
      - ㉢ 광무정권이 제정한 일종의 헌법(홍범 14조와 공통)
      - ㉣ 전제군주체제의 강화(황제권의 무한함 강조)
        - 입헌군주제와 의회의 설립을 주장하는 독립협회의 탄압
    - ㉡ 양전사업의 실시 → 지계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
    - ㉢ 상공업 진흥책의 실시 : 실업교육의 강조, 유학생의 파견 등
  - ③ 한계성 :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열강의 간섭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

**[15] 러일 전쟁(1904 ~ 1905)**

- (1) 원인 : 용암포 사건

(2) 경과 : 한국은 중립외교의 선언

(3) 결과 : 포츠머스조약의 체결